다산포럼

전쟁·재난 속 인간의 힘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조교수

동래의 한 영화관에서 '한산'을 보았다.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는 잘 알지 못했다. 임진왜란의 시작인 동래에 와서 살기 시작한 이후 동래의총 등 집 주변의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임진왜란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야기했는지에 대해 어렴풋이 생각해 본 정도였다.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그 흔적이 어딘가 묻혀 있을지 모르는 곳, 그리고 왜군의 본진이었던 부산성 근처란 생각에 영화를 훨씬 몰입해서 보게 된 것 같다. 또한 절제된 박해일의 연기 덕에 이순신 장군의 고뇌에 대해 보다 공감할 수 있었다.

영화는 전쟁 초기의 한산대첩을 다루지만, 이후 7년 전쟁 기간 동안의 사회가 궁금해져서 '징비록' '난중일기' '쇄미록' '선조실록' 및 관련 연구서와 논문들을 찾아 읽으며 전쟁이란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무엇을 버팀목 삼아 살아갈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며 폭염과 폭우의 2022년 여름을 보냈다. 조선 개국 이후 북쪽을 제외하고는 별 전쟁 없이 살던 사회에서 왜군의 진격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왕도 도망가고, 모든 장수가 도망가 버리는 상황에서 왜 의병들은 나라와 민을 지켰을까? 왜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까지 하고 나서도 그렇게 진력을 다해 치열하게 싸웠을까? 인간의 모든 도덕과 질서가 파탄날 정도의 엄청난 살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임진왜란과 관련된 글들을 찾아 읽다 보니 여러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다.

'징비록'에는 상주전투에서 왜군에게 대패한 이일 장군이 초라한 행색으로, 평양으로 피난가고 있는 왕의 행렬에 합류했을 때의 이야기가 있다. 류성룡은 장군의 행색이 초라하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의관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일 장군에게 행장을 뒤져서 남색 비단 옷을 찾아 입혀주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물건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죽신을 구하지 못해, 짚신을 신은 채 이일 장군이 걸어야 했다. 이에 류성룡이 "비단옷에 짚신이라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구려" 하고 웃자,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징비록'에는 류성룡이 남의 나라 싸움에 별 전투 의지가 없는 명군을 때로는 명분으로, 때로는 실리로 어르고 달래 가며 명나라 군인과 말들을 먹일 군량미를 힘겹게 조달해 평양성과 한양을 수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또한 '한산' 영화에는 준사라고 하는 항왜의 이야기가 나온다. 왜군이었지만 조선에 투항해 싸웠던 항왜 중 한 명이 왜군은 부녀자와 아이를 아주 잔학하게 학살하는 반면, 조선인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부모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임진왜란이 지속되며, 수많은 살육과 엄청난 폭력 고통이 조선을 휩쓸고 있었다. 하지만 또한 그런 폭력의 상황에서도 인륜과 도덕, 사회의 질서 등 인간의 꼴을 지키기 위해 제 자리에서 품위를 지키며 역할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전쟁이란 엄청난 재난 이후 사회는 회복될 수 있었던게 아닐까?

모든 질서가 뒤집어지고 파천을 하는 상황에서도, 임금이 임금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 충언을 다하는 신하, 신하는 신하다운 꼴, 품위와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의관을 갖추며 제자리를 지키는 신하들이 있었다. 난리 통에 도망가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제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 직업 윤리와 사(士)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과 신의를 지키며 이순신 장군은 개인의 굴욕과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를 목숨을 다해 지킨 것이 아닐까?

임진왜란의 참상과 전모, 조선과 동아시아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생 공부를 해도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두 일화는 임진왜란이란 엄청난 재난 속에서 인간의 삶이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작은 실마리를 제공한다. 많은 이들이 도망가더라도 자리를 지키려는 장수와 선비들, 그리고 인간의 무참함이 드러나는 살육의 공간 속에서도 자신들의 직분과 품위, 인간의 도리를 잊지 않은 사람들, 그들 간의 신뢰와 공유되는 세계관이 있었기에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인간의 삶은 전쟁이란 참화 이후 다시 이어지고 되살려질 수 있었을 것이다.

20세기의 짧은 평화의 시기 이후, 기후 위기와 전쟁 등 복합 재난의 전조가 드리운 지금, 우리는 역사의 처절한 경험들을 살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버티어 내고 재난에 대비할지 관료제적 합리성을 넘는 '징비'(懲毖)의 지혜를 익혀야 한다.

NGO 칼럼

광주시교육청 '공익 제보 지원·보호 조례'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최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 관련 공익신고를 상급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연수 주최 기관으로 이송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익 신고자 신분 노출은 행정기관의 단순 실수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신고의 절반 가량은 접수·처리 부서(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공익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해 인용된 경우는 총 45건이었다.

공익 신고자의 개인 인적 사항을 밝히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중대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공익 신고자가 신고 초장부터 신분이 드러날 위험에 처해 있지만, 신분 공개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행정기관은 고발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이 인용된 45건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17건에 불과했으며,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사건도 광주시교육청의 조치가 요원한 상태다.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 고사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해 주면 공익 신고 활성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에 따르면 2020~2021년 기간 동안 단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는 등 1년에 4~5건 수준으로 실적이 빈약했다.

문제는 신분상 처분 및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만 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유인 즉 공익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 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개인 인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는 등 공익 신고 제도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격려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벌 없는 사회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 신고 절차·보상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 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했다. 또한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 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 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더불어 지급 요건, 지급 금액, 지급 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 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 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 신고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익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과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선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기 고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정책에 대한 관심부터

장욱종
신부·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해마다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함평에서도 청소년 참여 기구가 주관이 되어 '청소년들에게 관심 있고 실행 가능한 주제'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실 '정책'이라는 단어는 의미만으로도 무겁고 어렵다.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단어인데 청소년들에게는 오죽할까! 필자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정책 강의를 자주 나가는데, 다양한 주제를 의뢰받는다. 가장 먼저 청소년들이 정책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유형이 있다.

다음으로 정책 제안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주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유형도 있다. 그럼 왜 필자가 두 가지 유형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몇 달간의 진행 과정이 필요하다.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한다. 고민이 되는 청소년들만의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부터 시작해 몇 가지의 주제 틀이 정해지면 최종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다른 지역 혹은 문헌에서 나타난 정책 제안 주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과연 이 주제가 우리 지역에서 실현되기 위해 어떠한 과정과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지, 여러 날을 거쳐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공감대이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지역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으로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또한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 사전에 지역 내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인 정책 제안 이전에 발표 내용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발표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절차별로 진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요즈음 청소년들은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학과 일정 틀 속에서 학교생활이 이루어진다. 특히나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내용이 교내 활동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적극적이지 않고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은 대외 활동을 주저하게 된다.

필자의 기관에 속해 있는 청소년 참여 기구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은 많지만, 막상 기본적인 정례 회의 날짜나 행사를 하기 위한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 모임을 갖고자 하면, 전체 인원이 다 모이는 상황은 손에 꼽을 정도로 힘들다. 회의를 하기 위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지친 모습으로 오는 참여 기구 위원들을 보면 많이 안타까울 정도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실 매년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활동은 늘어가고 있다. 어떤 때는 청소년 현장에 활동가로서 모르는 활동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정말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듣고 이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이 담긴 청소년 활동을 만들거나 제시해 준다면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고민을 통해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제시했을 때 "그래 고생했다!" 하는 수고의 말도 힘이 된다. "올해나 내년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너희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할게"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 준다면, 정책에 대한 관심 단계부터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는 시기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은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배운 분들의 몫이다.

결국 긍정적인 자신감이 작은 변화를 이끌고 청소년들이 꿈꾸는 세상을 견인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한번 해 보자!"라고 자신 있게 공감대를 심어 줄 수 있는 청소년 현장의 활동가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행불자 지도' 5·18 실종자 찾는 단초 되길

1980년 5월 전후로 당국에 '행방불명 보상 신청'을 제기한 242명 가운데 183명은 42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는 최근 행방불명자 전수 조사를 통해 행불 경위 추적 결과를 담은 '행방불명자 지도'를 작성, 2022년 상반기 조사 활동 보고서에 담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국에 의해 행불자로 인정된 85명과 함께 행불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98명 등 모두 183명의 행방이 여태껏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59명은 조사를 거쳐 생사가 확인됐다.

'행방불명자 지도'는 5·18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5·18 행불자 문제는 보상을 위한 심사만 이뤄졌을 뿐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 행불 인정자와 불인정자 모두 행방불명 시기는 5·18 당시가 대부분이었고, 행불 장소는 광주 일원으로 파악됐다. 행불 원인은 시위 참가 및 시내 출타 등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행불자 보상 신청서를 낸 242명 가운데 무직자가 68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 53명(21.9%), 농어업 31명(12.8%), 학생 26명(10.7%) 순이었다.

5·18진상조사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행불자 추적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암매장 추정 사건 발굴 과정에서 확보한 유해와 행불자 유가족 유전자를 대조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때마침 5·18진상조사위 활동 기한이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된 만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그동안 미진했던 발포 명령자 등 5·18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민주 '확대명' 전대…호남 무관심 되새겨 봐야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승하며 독주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권리당원 투표에서 전북 76.81%, 광주 78.58%, 전남 79.02%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며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35%로 박용진 후보(21.65%)를 크게 앞섰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굳어지는 흐름으로, 8·2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등장이 확실시된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호남 단일 주자인 송갑석 후보가 광주·전남에서 선전하면서 중위권 후보들 간 접전 구도가 형성됐다. 후보별 누적 득표율은 정청래 26.40%, 고민정 23.39%, 서영교·장경태 10.84%, 박찬대 9.47%, 송갑석 9.09% 순이다. 7위를 기록한 윤영찬 후보는 어제 후보직을 사퇴하고 송갑석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차기 지도부가 친명(친 이재명) 체제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후보의 독주에는 그늘도 만만치 않다. 특히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율이 전북 34.07%, 광주 34.18%, 전남 37.52%로 이전까지의 전국 평균 투표율(37.69%)보다 저조하게 나타나 새 지도부 출범을 앞둔 민주당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심장인 호남 민심이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호남의 저조한 투표율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평당원인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현역인 이병훈 의원을 상대로 4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지역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면 '녹색 돌풍'이 거셌던 지난 20대 총선처럼 차기 총선에서도 호남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디지털 문해력

신라 22대 지증왕(437~514)은 왕권을 강화하며 이전에 '이사금'(尼師今) '마립간'(麻立干)으로 부르던 최고 지도자 명칭을 중국식인 왕(王)으로 바꾼다. 또 사라(斯羅)·사로·신라(新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다.

이를 철학자 윤구병은 '내 생애 첫 우리말'에서 "(6세기 한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기) 그 전에는 표현 수단으로서만 쓰이던 것들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거지. 이사금을 왕으로 쓰고 부르는 게 더 편하니까 왕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자말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말이 사라지기 시작해"라고 분석한다.

게다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일본식 한자가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침투했다. 최근에는 한문 교육 축소와 한글 전용 정책 등이 이뤄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한자 병기 없이 한글로만 표기하면서 여러 오해가 생겨나곤 했다.

최근 빚어진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한 콘텐츠 전문 카페가 웹툰 작가 사인회 예약 오류를 사과하는 공지를 하면서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SNS 이용자들이 '심심해서 사과한다는 뜻임?'과 같은 댓글을 달면서 문해력 논란으로 번졌다.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의미의 '심심(甚深)하다'를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로 해석하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故) 이어령 교수는 '거시기머시기'에서 6살 때 천자문 '천지현황'(天地玄黃)을 배우던 시기의 일화를 들려준다. 그는 "내 눈에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 왜 서당에서는 까맣다고 가르치나요?" 궁금해 했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여러분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계는 빛나고 누구나 자기 인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문해력 논란을 통해 한자 교육 강화와 함께 진지하게 우리말 뿌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